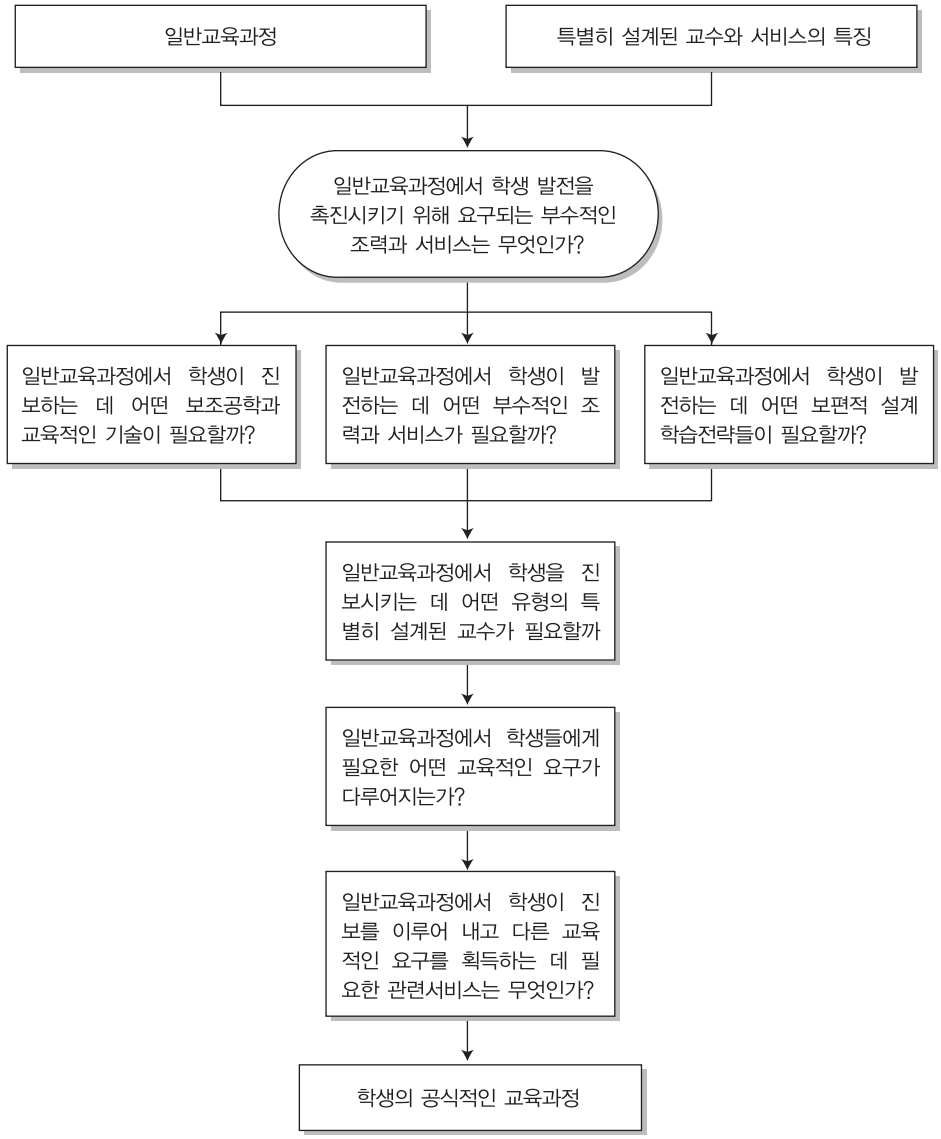
교육계획과 학생참여 3

제2장에서는 일반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자기결정의 증진을 논의했다. 그러나 연방법과 특수교육의 실천은 언제나 개별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연방법의 의도가 일반교육과정으로부터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수교육 서비스의 요소는, 매년 개최되는 IEP 회의에서 결정된다. IEP 회의는 자기결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이 장 전반에서는 자기결정 증진 전략의 하나로 교육계획 작성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3.1〉은 자기결정 증진을 위한 교수가 일반교육과정과 학생의 독특한 학습 요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모델이다.

그림 3.1 IEP 팀을 위한 의사결정 모델



출처: Wehmeyer, M. L.,(2000). Access to the general curriculum for high school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Curriculum adaptation, augmentation and alteration. Unpublished grant proposal.

1. IEP 계획하기, 일반교육과정 접근 및 자기결정

개별화교육은 특수교육 실천의 핵심이다(Turnbull, Turnbull, Wehmeyer, & Park, 2003). IDEA는 학생의 IEP가 일반교육과정과 학생의 독특한 학습요구 두 가지 모두에 바탕을 두기를 요구한다. 〈그림 3.1〉에서 보여주듯이, Turnbull, Turnbull과 Wehmeyer(2006)는 IEP 팀이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IEP 팀을 위한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했다. 팀 구성원 중에 한 사람 혹은 더 많은 사람이 학생의 학년 수준에 적합한 일반교육과정을 잘 알고 있고, 기준 내의 어떤 부분에서 자기결정 주제를 강조해야 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IEP 팀 구성원은 자기결정과 학생의 교수적인 요구, 그리고 이 장의 후반에 논의될 일반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1) 부가적인 조력과 서비스

일반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자기결정과 관련된 교수를 실행할 때, 학생의 진보는 부가적인 조력 및 서비스를 통해서 촉진된다. IDEA는 부가적인 조력과 서비스를 '일반학급에서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들과 함께 최대한 적절한 교육, 서비스 및 조력을 받도록 환경에 제공되는 교육과 관련된 지원'이라고 정의하였다[20U.S.C. 1401, SEC. 602, Page 118 Stat. 2658(33)]. Wehmeyer(2000)는 일반교육과정에 접근을 촉진시키는 여섯 개의 부가적인 조력과 서비스 영역들을 제시했는데(표 3.1), 이는 ① 보편적 학습설계(UDL), ② 인지적 및 물리적 접근성, ③ 학급의 생태학적 변인들, ④ 교육 보조 공학, ⑤ 사정 및 과제의 수정, ⑥ 교사, 보조교사, 혹은 또래지원 등이다.

이들 영역 중 첫 번째인 보편적 학습설계에 대해서는 이미 앞장에서 논의를 하였다. 보편적 학습설계와 교육과정 수정이 어떻게 자기결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제2장의 논의와 부합되도록 IEP 팀 구성원들은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에 보편적 학습설계 및 교육과정 수정이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해야 한다.

표 3.1 일반교육과정에 접근을 보장하는 부가적인 조력과 서비스

영역	정의	보기
보편적 학습설계	교육과정이 제시되는 방법의 수정 혹은 학생이 교육과정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수정	디지털 음성도서, 선행 조직자, 비디오나 오디오의 입력과 출력
접근성	신체적 및 인지적 접근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캠퍼스, 건물 혹은 교실로 가는 방법 수정	도로의 턱 없애기, 넓은 출입문, 통로를 막는 것 없애기, 인쇄물이 아닌 신호체계
학급 생태학적 변인	학습에 영향을 주는 학급 환경 특성에 대한 수정과 배치	좌석배열, 좌석의 유형, 음향상태, 조명
교육 보조 공학	개인의 장애가 개인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기술	계산기, 의사소통을 확장시키는 도구, 컴퓨터
사정 및 과제의 수정	사정 혹은 교육과제에 참여를 도와주기 위한 시간 혹은 과제 요구사항(내용 혹은 자료에 관한 것은 아님)에 대한 수정	확대된 시간, 대신 필기해 주는 사람, 노트해주는 사람, 말로 발표해 주는 사람
교사, 보조교사 혹은 또래지원	교수활동에 참여를 도와주는 타인의 지원	또래친구, 교육도우미, 교사

출처 : Wehmeyer, M. L.(2000). Access to the general curriculum for high school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Curriculum adaptation, augmentation and alteration. Unpublished grant proposal.

다음은 학교, 학급 등 교육적인 환경에서 물리적 · 인지적인 접근의 보장이다. 만약 학생이 학교에 올 수 없다면,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학교 및 과외활동에 참여하며 자기결정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해결, 의사결정, 목표설정 그리고 자기결정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이 통과된 이래로 물리적 접근성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훨씬 줄어들었고, 공립학교 건물을 포함해 공공건물에 완전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인지적 및 물리적인 접근은 학생의 경험과 기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오래된 고등학교의 강당들은 지체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시 바꾸었지만, 실제로 강당 뒤쪽에만 이런 시설이 마련되었다. 만약 학생회 회의가 이런 강당에서 개최된다면, 지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다. IEP 팀은 장애학생이 모든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접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고려해

야 한다.

학급의 생태학적인 변인들에 관해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제4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IEP 팀은 공학이 어떻게 일반교육 교육과정에 접근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보조, 전자 및 정보 공학에 접근하는 것은 자기결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의사소통 도구의 확장은 말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제한점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것, 요구사항 및 선호를 표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은 자기결정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측면이다. 인지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는 접근 가능한 공학이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지장애를 가진 많은 학생들이 의존하는 영역 중 하나는 재정 계획 및 관리이다. 정신지체 학생은 예산을 준비하고 당좌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데 요구되는 수학적 계산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Intuit's Quicken(역자주-재무관리용 소프트웨어) 혹은 Microsoft Money(역자주-가계부용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인 수학 기술에서부터 자료를 입력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수표장을 관리하고 예산의 변화를 기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바꿀 수 있다. 더욱이 매달 자신의 은행 입출금 기록을 은행의 웹 사이트에 있는 Quicken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 입력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Ward와 Meyer(1999)는 자폐증을 가진 사람을 위한 이메일과 웹 기반 공학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것은 다른 매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가진 타인에게서 배우고 자신의 감정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한 공학은 일부 자폐아동들이 자신의 의견, 선호, 선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팀원들은 자기결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학생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교사(paraeducator), 또래 및 특수교사 등 다른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 이후의 장에서 자기결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사, 부모

및 또래중재 교수 등에 대하여 논의하겠지만, 여기서는 자기결정을 지원하는 보조교사의 역할을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인지장애 학생의 교육에서 보조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보조교사는 때때로 학생에게 직접교수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룹 활동에서 조력을 제공하거나 학생통합을 촉진시키며 학생의 사회적 관계망을 조성한다. 만약 이러한 보조교사 역할이 잘 수행된다면, 인지장애 학생의 자기결정을 촉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Turnbull(2006) 등은 보조교사가 학생에게 오히려 의존의 원천이 되고 독립을 촉진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의존을 촉진시킨다고 했다. Turnbull과 그의 동료들은 이것을 '벨크로(찍찍이)가 된' 상태라고 말하는데, 이 상태는 마치 학생이 벨크로처럼 보조교사와 결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여 학생이 자율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IEP 팀 구성원의 일부로, 또한 자기결정 증진과 관련된 논의에 보조교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첫 번째 단계일 것이다. 제6장에서 논의하겠지만, 학생주도적인 학습의 촉진은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고, 보조교사 및 교사도 이런 교수전략을 이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2) 특별히 설계된 교수

일단 IEP 팀이 자기결정을 증진시키는 부가적인 조력과 서비스를 고려하고 나면, IEP 팀 구성원들은 일반교육과정 맥락 안에서 자기결정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특별히 설계된 교수를 고려해야 한다. IDEA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특별히 설계된 교수' 라고 정의하고, 이것은 일반교육과정에 장애학생들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학생들의 독특한 요구를 강조한 내용, 방법 혹은 교수전달 등의 수정을 말한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이러한 자기결정 증진을 위한 교수방법과 전략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 기타 교육적인 요구

일반교육과정 맥락 안에서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IEP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부수적인 조력과 서비스 및 특별히 설계된 교수에 대한 고려이다. 다음 단계는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히 설계된 교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교육계획 과정에 학생들 스스로가 참여하게 하는 문제는 이 장 후반부에서 논의된다. 대부분의 주와 지역에서 〈표 1.1〉에 나열된 자기결정행동 구성요소들을 모두 망라한 교수는 없다. 그중 특별히 중요한 분야는 자기옹호 영역이다. 왜냐하면 교육계획에서 자기옹호와 학생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자기옹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수적인 노력을 살펴본다.

2. 자기옹호와 학생 참여

1) 자기옹호 증진

장애학생이 독립하기를 원하고 자기결정력을 갖추길 원하거나, 청소년들이 교육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자기옹호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표 3.2〉는 청소년이 효율적인 자기옹호자가 되게 해 줄 교수영역을 나열하고 있다.

표 3.2 자기옹호를 위한 교수영역

자기주장 행동
대중 앞에서 말하는 기술
지도력과 협동작업 기술
타인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기술
의사결정 기술
문제해결 기술
법적인 시민권리와 책무성
전환계획 작성
목표설정과 목표획득
지역사회 자원 활용
의사소통, 협상 및 타협

(1) 자기주장 행동

자기주장 행동을 가르치는 것은 자기옹호를 증진시키는 첫 단계이다. 자기주장 행동은 학생이 스스로를 옹호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의견을 표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자기주장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수가 강조되면서 많은 핵심적인 요소가 통합되었다. 학생에게 자기주장 행동은 수동적인 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학생들에게 '옹호하기'는 옹호하는 행동임을 강조하고, 자기주장하기와 옹호하기는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과 눈 맞추기
- 확고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하고 감정적인 행동 피하기
-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말해야 할 올바른 대상 찾기
- 권리와 책무성 인지하기
- 인내심 기르기

다른 자기옹호 기술 영역에서처럼, 교육계획 과정은 자기주장 기술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시한다.

(2) 의사소통 기술

학생이 자신을 옹호하고 바라는 성과를 성취하도록 해 주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자기주장 기술을 가르치는 것과 서로 연관된다. 학생이 적극적으로 타인의 말을 듣고, 남을 설득하고, 협정을 맺고 타협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이 사용된다.

듣기 학생은 자기옹호에서 듣기 기술이 자기주장 혹은 대화기술만큼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학생에게 역동적인 듣기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

- **말하고 있는 사람 바라보기.** 누군가가 말하는 동안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화자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표현이다.
- **질문하기.** 어떤 사람이 능동적으로 타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말하는 사람은 듣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말에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질문은 화자가 말한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두 경우에 청자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상대방이 듣고 있다는 것을 화자에게 알려 줄 수도 있다.
- **방해하지 않기.** 화자에게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를 질문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말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좋은 청자는 상대방이 방해 받지 않고 말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반복된 방해는 화자에게 청자가 실제로는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 **기록하기.** 어떤 경우에는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록하기는 청자가 그 대화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도록 도울 수 있고, 화자에게 청자가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만약 학생이 화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면, 핵심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학생이 논의의 맥락을 계속해서 따라오게 도울 수 있다.

(3)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

눈 맞춤, 얼굴표정, 제스처, 신체언어 등과 같은 비언어적인 행동은 의사소통 상호작용의 중요한 구성요소들로, 특히 옹호에 초점을 맞춘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작용에 중요하다. 학생에게 강조될 수 있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는 수많은 양식들이 있다.

- **눈 맞춤.** 눈 맞춤은 존중과 존경에서부터 불안과 화가 남에 이르기까지 인간 정서의 광범위한 영역을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눈 맞춤의 유형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들을 구분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주 눈 맞춤을 하는 것과 눈썹을 위로 치켜 올리며 두 눈을 크게 뜨는 것은 수용, 인정 혹은 자기주장 등을 가리킨다. 반대로, 곁눈질하기 혹은 쏘아보기와 눈 맞춤 회피, 내려다보기 혹은 멍하니 허공보기 등은 무관심을 나타낸다.
- **얼굴표정.** 얼굴표정은 감정을 의사소통하기 위한 눈 맞춤과 함께 작용한다. 미소는 인정이나 행복한 감정을 전달하고, 얼굴을 찡그리는 것은 불만족을, 꽉 다문 입술이나 오므린 입술, 꽉 다문 이와 찡그린 얼굴은 화난 것을 나타낸다.
- **제스처와 신체언어.** 손과 팔의 동작은 언어적인 메시지를 증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인정 혹은 수용은 머리 끄덕임, 열린 자세(예 : 양다리를 꼬지 않은 자세, 두 팔을 양 옆에 둔 자세), 자기 몸을 상대방 쪽으로 향하게 하기 및 다른 신체적인 움직임 혹은 제스처 등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것, 팔짱을 끼는 것, 신체적인 자세 등은 상대방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음을 표현한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 끝으로 가리키거나 손가락을 흔드는 것,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하거나 턱을 내미는 것은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뒷짐지는 것이나 발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 등은 무관심 혹은 따분함을 가리킨다.

설득 설득하기는 해명과 논의를 통해 누군가를 당신의 견해 혹은 계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설득은 유사한 목적 혹은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자신의 계획 혹은 아이디어가 타인의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확신시키는 데 사용된다. 학생들이 설득력을 키우도록 가르치는 것에는 일련의 의사소통 전략을 배우는 것도 포함된다.

- 첫째, 하나의 주제 혹은 논점에 관한 누군가의 의견이나 입장에 대해 당신이 이

해한 것을 그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 둘째, 자신의 계획 혹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동일한 목표를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설명하기
- 셋째, 자신의 계획 혹은 생각이 가진 부가적인 이점 혹은 장점들을 설명하기

협상과 타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일련의 기술들은 합의된 계획, 행동, 혹은 입장 등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포함한다. 설득의 목적은 타인들에게 자신의 계획 혹은 행동이 최선이라는 점을 확신시키는 것인데 이는 타인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협상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 아이디어, 혹은 입장을 전적으로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들에게 만족스러운 받아들일 만한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 협상이란 본질적으로 거래를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하고, 그 거래는 타협을 포함한다는 것, 즉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 어떤 경우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정도만이라도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 학생들에게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계획, 생각 혹은 제안이 무엇인지 사전에 협상을 해 보도록 가르치기
-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의하여 듣는 것으로 시작해 다른 사람들에게 즉시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내도록 가르치기
- 학생들에게 감정적으로 되지 않도록 조언하고,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유지시키고, 동의와 타협의 영역을 찾아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도하기

(4) 권리와 책임

권리에 대한 표현은 자기주장 진술에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장애학생은 권리에 관해

배우고 그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자기주장 훈련 혹은 사회성 기술 프로그램 등과 같이 자기주장 행동 교수전략은 학생에게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수는 무엇을 옹호하고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면 종종 권리에 대한 교수는 투표기술, 헌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법률과 법제정 과정에 대한 지식 등과 같이 주로 시민의식 훈련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주제이며 일반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은 장애를 가진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그것을 통해 보장된 법적인 보호에 관해 구체적으로 배워야 한다. 이것은 미국 장애인법(ADA)과 장애인교육법(IDEA) 등에 명시된 동등한 권리 보호법 및 차별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데 장차 중요한 관점이 될 수도 있다. 학생은 IEP 계획 과정의 요구사항, 다양한 구성원의 역할, 과정의 목적 등에 관해 배울 수 있다. 또한 학생은 권리가 책임과 결부되고 몇몇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애학생들은 단지 그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협상과 타협, 효과적인 상술(타인권리 인정하기 등), 그리고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같은 기술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2) 교육계획에 학생참여

1997년 IDEA 수정 법안에서는 전환교육 목적으로 IEP 계획 작성 모임에 장애학생을 초대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자기결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 및 교육계획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교육계획 과정은 목표를 조명하고,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포함하며, 자기옹호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것은 자기결정 증진을 위한 강력하고 논리적인 수단이다.